

공동체 소식



연중 제 30주일

하느님, 눈먼 이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받는 이에게 기쁨을 주시며,
억눌려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아드님을 자비롭고 의로우신 사제로 보내 주셨으니,
저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희가 모두 아드님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10월 기도지향

- 문석찬 요셉, 문문주 엘리사벳 가정
김도영, 박희영 카타리나 가정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Values: 26, 212, 166/168, 271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이번주일, 다음주일, 시종 복사, 향 복사. Lists names like 이원준, 고평원, 정예찬, 정채린, 정병훈, 김준영, 안광민, 문호진.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Lists names like 박혜정, 김주연, 신혜경, 박희영, 김태중, 김시연.

애찬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금주, 차주, 박정자, 김경돌, 한순례, 정지현,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헌금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금주, 차주, 정수한, 김대성,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영성체, 헌금, 교무금. Values: 10/18, 64명, 349불, 880불. Note: 문석찬, 김대연, 김태중. (총 3세대)

총구역회 모임(구역장 모임)

- 일시: 오늘 교중미사 후
장소: 본당회관

전례부 모임

- 일시: 10/30(금) 오후 1:00
장소: 본당회관

위령의 날 연도기도 안내

- 일시: 11/01(주일) 교중미사 시작 40분 전.
내용: 위령성월을 맞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써머타임 해제 안내

- 다음 주일(11/1)부터 써머타임이 해제됩니다.
기도와 미사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가곡 조정 안내(대림시기부터)

- 자비송: 325번, - 대영광송: 326번,
거룩하시도다: 327번,
신앙의 신비여: 373번(1절-연중, 2절-대림·사순, 3절-부활)
아멘: 378번, - 주님의 기도: 387번,
주님께 나라와 권능: 389번,
하느님의 어린양: 328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부 편집: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무지와 죄에 빠져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낮게 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림 묵상

마음의 눈

불쌍한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작은 믿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로 희망의 해가 떠오릅니다. 탐욕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바르티매오처럼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청해 봅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1,7-9 < 눈먼 이와 다리저는 이를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



화답송:



저희는 못 견디게 기뻐했나이다

- 시온의 귀양을 풀어 주님께서 돌려 보내실 제 저희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그때에 저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흥겨운 노랫가락 혀에 넘쳤나이다.◎
○ 그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하느님께서 저들에게 큰 일을 해주셨다 주님께서 과연 저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저희는 못 견디게 기뻐했나이다. ◎
○ 주님 사로잡힌 저희 겨레를 남녘 땅 시냇물처럼 돌려 주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 뿌릴 씨를 가지고 울며 가던 그들은 곡식 단 들고 올 제 춤추며 돌아오리이다.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제 2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5,1-6 <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나도 장님 바르티매오와 같은 사람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고 있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 길을 가시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바르티매오라는 시골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탁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땀국물이 넘쳐흐르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장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당장 바로 앞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측근들이 짜증을 내면서 누군가에게 야단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재빨리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장님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느님만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그 장님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임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 구해달라고 마구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쫓아내는 중이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그 가난한 장님의 아름다운 신앙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간결하지만, 그 장님의 인생을 마음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서는 가난으로 찌든 그 장님의 확고한 신앙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장님은

자유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나에게 자폐아 장애인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을 존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있나요? 성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미사 중에 뛰어다니는 행동을 하는 그들이 하느님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들이 주일 아침에 눈만 뜨면 성당에 가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저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웅얼거리면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죄한 어린양과 같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기고, 내 앞에서 그들이 사라지도록 내몰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날 무한 경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파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신음하시고 억압당하며 고통받고 계시는데, 혹시 나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느님을 꾸짖고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요?



- 주수옥 신부 | 대방동 성당 주임 -



깊은 믿음의 아이로와 하혈하는 부인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호숫가 건너편에 도착하자, 군중들 틈을 비집고 지체 높아 보이는 한 사람이 예수님 발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아이로라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그리스어로 '시나고가' 라고하며, 기도와 집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당이라 하면 유대인이 기도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최고 책임자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아이로라는 회당장은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절하면서 무엇을 청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5,21-23

예수님께서서는 아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며 밀쳐 댄기 때문에 걷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 군중들 사이에는 열두 해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치료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5,24-34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로 일행에게 혈레벌떡 뛰어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당황

한 회당장에게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의 일행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니 안에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5,34-43

누군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기도 하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회당장 아이로에게 “예수님께 가보라”고 자신 있게 말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그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 말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최후의 희망을 걸고서 한걸음에 달려온 아이로와 하혈하는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 글 여영업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당신의 마음이 한결같고 넓다면
당신 자신을 흔들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고
하느님을 믿고
고요히 기다린다면

당신의 마음은 한결같이 아름다울 거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기다립니다.

한결같이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중!(루카 12:43)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